

‘삼성 부당합병 의혹’ 1심 결심 공판

‘결백-실형’ 평행선... 사법리스크 장기화 되나

〈이재용 회장〉 〈檢〉

檢, 징역 5년에 벌금 5억 구형  
“합병 통한 공짜 경영권 승계”

이 회장, 결백 주장... 선처 호소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주시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리스크 장기화 우려에 결국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다. 징역 5년형을 구형받은 후 떨리는 목소리로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 지방중앙지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받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 지주사격인 삼성물산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일모직에 유리한 비율로 합병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과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다. 자본시장법과 외부 감사법 위반, 배임 등 혐의다.

함께 재판을 받은 임원들도 적지 않은 구형을 받았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이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차장이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이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공짜 경영권 승계’에 불과하다”며,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의사 결정권자인데다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주주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거듭 강조하며, “기업가로서 모든 역량을 온전히 나아가는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회사를 위해 헌신한 다른 피고인들을 선처해달라고도 덧붙였다.

◆벌써 8년, 10년 넘기나  
이 회장은 8년 가까운 시간 법원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5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1월 처음 ‘국정농단’ 사건으로 소환돼 2021년 실형을 확정하며 재판을 끝내긴 했다. 하지만 2020년 9월부터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을 다시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새로운 사법리스크에 빠졌다.

삼성도 그동안 혁신에 어려움을 겪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과 폴더블 혁신 등으로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정작 시급한 과제였던 미래 전략 수립과 지배 구조 개편 등에서 지지부진했다. 100조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유례없는 ‘빅딜’ 기회까지 맞았지만, ‘의미있는 M&A’에 실패한 이유도 이 회장 부재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회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판 대부분에 출석하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106차례 중 95차례나 직접 자리를 지켰다. 공판에는 변호인만 출석해도 되는 만큼 이례적이라는 평가,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끝내기 위한 진심을 보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이 지난해 사면된 이후에도 그렇다할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남아있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으로 풀이된다”며 “굳이 적극적으로 출석한 이유도 직접 증언을 해야 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이번 재판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결국 이 회장 사법리스크는 10년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제야 1심이 끝났고, 2심과 대법원까지는 그 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다.

전망도 부정적이다. 검찰과 이 회장 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뚜렷한 증거 없이 적지 않은 구형이 나오면서 1심 판결 내용과 관계없이 항소심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뚜렷한 증거 없어... 승복 관건  
대법원 판결 시 수년 이상 소요  
재계 “韓 경제 동력 잃을 수도”

그나마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결과에 승복할 가능성은 높다. 다만 이 회장이 이번 재판과 밀접하게 연관된 ‘국정농단’으

로 실형을 살았던 만큼, 실형이나 과도한 형량까지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회 호소, 왜?

이 회장이 앞으로도 수년간 재판을 이어가게 되면 ‘뉴삼성’ 선언도 더욱 미뤄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故 이건희 선대회장 3주기와 회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새로운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해왔다. ‘신경영선언’ 후 30년만, 2010년 ‘5대 신수종’ 발표 이후에는 13년만이다. 이 회장이 2018년 ‘반도체 비전 2030’ 등 미래 투자 방침을 선언한지도 5년이나 지났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이 새로운 사업 전략을 발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삼성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중소기업들까지도 이를 통해 미래 투자에 나선다는 것.

당장 현안도 산적해있다. 반도체 미세공정 난이도 증가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경쟁 업계에 빠르게 추격당하고 있다. 미중무역 분쟁을 비롯한 국제 정세 변화로 삼성 전자에 대한 압박도 커졌다. 삼성 성장 동력인 오너 경영에 따른 빠른 의사 결정과 전략 변화도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면 많은 기업들도 이를 따라가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있다”며 “최근 이재용 회장이 해외 활동을 늘리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다시 사법리스크가 커지면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최후 진술에서도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기회를 달라거나 선처를 호소한 이유도 처벌보다는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1면 ‘고금리에 가게·기업...’서 계속

〈국가별 GDP대비 가계부채〉

국가	GDP대비 가계부채
스위스	125.5
호주	110
캐나다	102.9
한국	100.2
홍콩	95.2
태국	91.5
영국	78.5
미국	73.2
말레이시아	67.8
일본	64.7
중국	62.7
유로	54.6

단위:% /국제금융협회

기업대출 비율 5.7%p ↑  
“일부 디폴트 위험 노출”

다만 기업대출 비율이 1년전보다 높아진 나라는 34개국 중 9개 국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러시아(68.2→81.6%)와 중국(158.3→166.9%)에 이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금리 환경을 고려할 때 기업부채의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중·저신용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이 늘고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10일 기준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 AA- 등급과 A+ 등급간 금리차는 61.9bp(1bp=0.01%포인트)이다. 2017년 2월(71.7bp)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B BB- 등급과 AA- 등급도 63.7bp 차이가 난다.

이 경우 고금리가 지속돼 금융기관들이 민간부문 대출을 줄이면 이들 기업이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들의 대출 여건이 더 팍팍해지면 차입비용이 상승해 일부 기업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며 “기업대출로 부실은 잠시 유예될 수 있지만, 이자보상배율이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무안국제공항이 살아납니다! 서남권이 발전합니다!

국제공항이 살아나면 관광객 OK! 기업투자 OK!!

무안국제공항과 광주 민간·군 공항이 만나 진짜 명실공히 광주·전남의 관문공항으로!

- 무안국제공항은 모든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 광주 국내선을 이전해야 국제선도 활성화됩니다.
- 군 공항까지 통합하면 서남권이 더 크게 발전합니다.
- 군 공항 소음 대책 확실히 마련합니다.
- 주민설명회에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